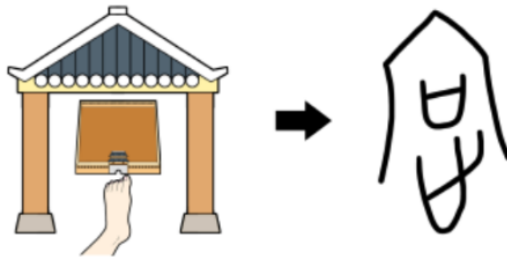


회의문자 ①



定

정할 정

定자는 '정하다'나 '안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定자는 宀(집 면)자와 正(바를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正자는 성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바르다'나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正자에 宀자를 결합한 定자는 '집이 올바르게' 즉 '(집이)편안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집안이 무탈하여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正자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정하다'나 '바로잡다', '평정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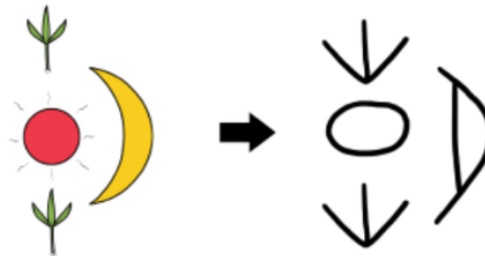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朝

아침 조

朝자는 '아침'이나 '왕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朝자는 𠂔(풀 초)자와 日(해 일)자, 月(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朝자의 갑골문을 보면 초목 사이로 떠오르는 해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달이 𠂔 함께 그려져 있었다. 태양과 달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月자 대신 舟(배 주)자가 잘못 그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月자로 표기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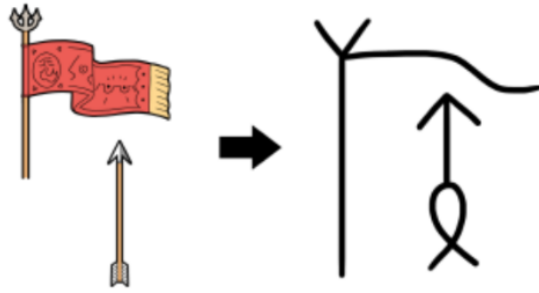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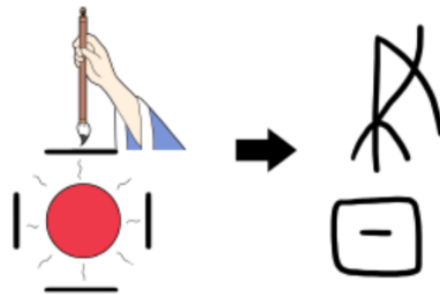
## 族

겨레 족

族자는 '겨레'나 '일가',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族자는 𡵓(나부길 언)자와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𡵓자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부끼다'나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矢자가 결합한 族자는 하나의 공동체를 표현한 것이다.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고대에는 민족이나 종족 간의 전쟁이 잦았다. 그래서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인 겨레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작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을 의미했다. 族자는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겨레'나 '일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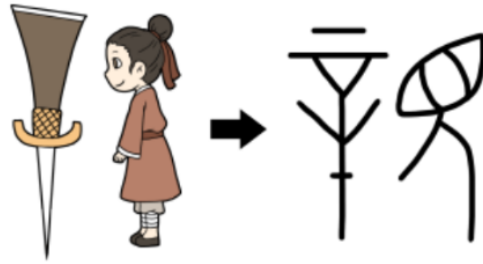
## 晝

낮 주

晝자는 '대낮'이나 '정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晝자는 日(해 일)자와 一(한 일)자, 聿(붓)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붓'이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붓을 그린 聿자에 日자가 결합한 晝자는 글공부하기 좋은 시간대라는 의미에서 '대낮'이나 '정오'를 뜻하고 있다. 참고로 晝자는 晝(글 서)자와 매우 비슷하니 주의해야 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 ①



親

친할 친

親자는 '친하다'나 '가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親자는 立(설 립)자와 木(나무 목)자,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辛(매울 신)자와 見자가 𠂔 결합한 형태였다. 辛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신→친'으로의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다. 親자는 감정적인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親자에 쓰인 見자는 눈앞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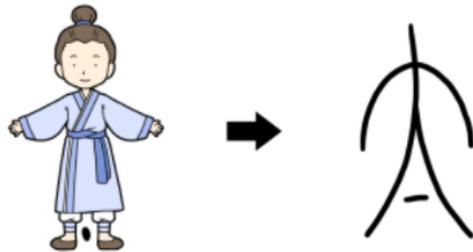
親

소전

親

해서

지사문자 ①



太

클 태

太자는 '크다'나 '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太자는 大(큰 대)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심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지사문자(指事文字)이다. 太자는 大자보다 더 크거나 심한 것을 뜻하기 위해 파생된 글자이지만 쓰임에 있어 두 글자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어렵다. 고대에는 大자나 太자를 구별 없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大자와 太자는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간혹 太자가 '매우 심하다'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단어도 많기에 이 두 글자의 쓰임을 딱히 구별하기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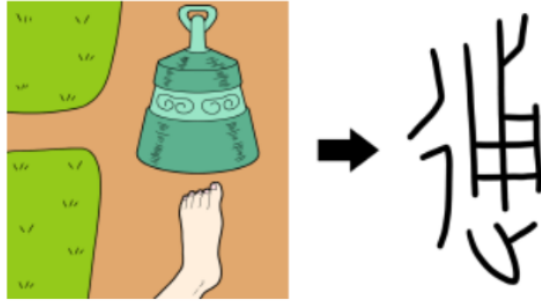
太

소전

太

해서

회의문자 ①



通

통할 통

通자는 '통하다'나 '내왕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通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甬(길 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甬자는 고리가 있는 종을 그린 것이다. 通자는 본래 '곧게 뻗은 길'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甬자는 속이 텅 빈 종처럼 길이 뻗 뚫려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길이 뚫려있으니 이동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通자에서 말하는 '통하다'나 '내왕하다'라는 것은 길을 가는 데 있어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

通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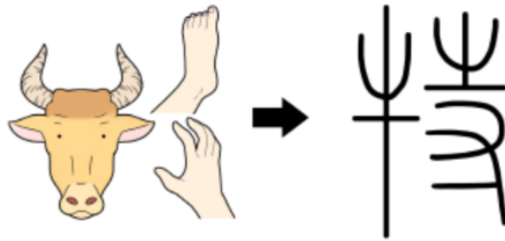
通

소전

通

해서

회의문자 ①



特

특별할 특

特자는 '특별하다'나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特자는 牛(소 우)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特자는 본래 '수소'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特자에 아직도 '수컷'이나 '수소'라는 뜻이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소는 암소와 달리 몸집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고대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쓰였다. 特자에 쓰인 寺자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고대에는 나랏일을 하던 관청에서 제사를 주관했었다. 그러니 特자는 관청에서 제사에 사용하던 특별한 수소라는 의미에서 '특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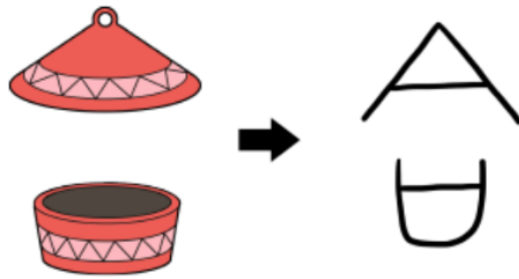
特

소전

特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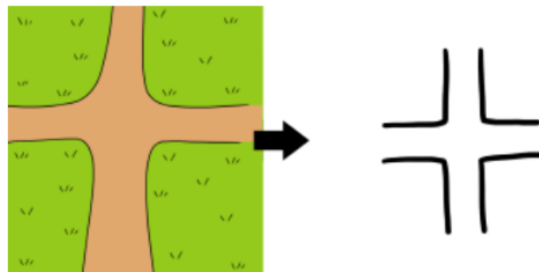
합

합할 합

합자는 '합하다'나 '모으다',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합자는 亼(삼합 집)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합자는 口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합자의 갑골문을 보면 뚜껑이 있는 찬합이 亼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합자는 이렇게 뚜껑과 그릇이 함께 결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합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行

다닐 행/  
항렬 항

行자는 '다니다'나 '가다', '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行자는 네 방향으로 갈라진 사거리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行자를 보면 네 갈래로 뻗어있는 사거리가 亍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나 마차가 다니던 사거리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行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길'이나 '도로', '가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行자는 한쪽 부분이 생략된 彳(조금 걸을 척)자가 쓰일 때가 있는데, 이는 彳자 자체가 별도의 부수 역할을 하는 경우로 역시 '가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참고로 行자가 '항렬'이나 '줄'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항'으로 발음을 구분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